

근대 복식을 통해 본 주얼리의 조형적 특성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Jewelry in the Early Modern Costume

김주애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Kim ju-ae

Dept. of Clothing & Textil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논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근대 주얼리의 시기별 조형적 특성

1. 나폴레옹 1세 시대 (1789-1815)
2. 왕정복고 시대 (1815-1848)
3. 나폴레옹 3세 시대 (1848-1870)
4. 세기말 I (1870-1890)
5. 세기말 II (1890-1910)

3.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목적은 근대의 변천과정에 따라 사회·문화적 배경이 주얼리에 끼친 영향, 의복과 보석과의 관련성, 시기별 주얼리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패션프레이트, 일러스트집 등 문헌적 고찰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혁명 직후는 애국주의적 보석만 허용되었으며, 19세기 초기까지 단순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보석사용이 감소되었다. 19세기 초기에 18세기 양식과 고전취미가 혼합된 호화로운 보석이 부활되어, 다이아몬드와 카메오로 된 티아라가 유행하였다. 1820년대와 30년대에는 감상적 보석이 유행되었으며, 30년대에 머리가 귀를 덮게 됨으로써 귀걸이가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1840년대는 보석사용이 감소되었다. 1860년대 이후에 빅토리아 여왕의 영향으로 흑옥의 애도보석과 헤어주얼리가 유행하였다. 아르누보시대에는 보석 자체의 가치보다 색채에 중요성을 두어, 백금, 준보석이 선호되며, 프리카주르 에나멜이 특징적이었다. 특히 도그칼라 형태의 진주 초커와 가랜드 스타일이 유행되었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의상 못지않게 주얼리도 많은 영향을 받으며, 오히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는 의복보다 더 민감하게 변화되었다. 또한 주얼리는 의복스타일 외에도 헤어스타일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amine how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affected jewelry amid

changes in the early modern society, relationships between costume and jewelry and the chr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jewelry. Toward these ends, fashion plate, illustration and previous studies have been examined.

Right after the French Revolution, only patriotic jewelry was allowed, and as its form was simplified until early 19th century, the use of jewelry was reduced. As pompous jewels that combine the mode of the 18th century with classical taste were revived in early 19th century, tiara consisting of diamonds and cameos gained popularity. Sentimental jewelry became popular in 1820s through 1830s, and as many people adopted ear-covering hair style, earrings were not worn, which resulted in reducing the use of jewelry in 1840s. In particular, mourning jewelry of jet and hair jewelry became popular under the influence of Queen Victoria in 1860s. In the era of Arts Nouveau, as emphasis was placed on color of jewelry rather than its value, platinum and gemstone were favored, and they were characterized by plique-a-jour enamel. In addition, a pearl choker of dog collar and garland style enjoyed popularity. Sociocultural changes influenced jewelry as well as clothes, and in some cases, jewelry was more sensitively influenced than costume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In addition to costume style, jewelry was greatly influenced by hair style.

(Keyword)

Jewelry, Formative Characteristics, Early Modern

1. 서론

액세서리(accessory)는 인간의 본능인 장식욕구에 대한 표현과 위협에서 보호해주는 부적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또한 권력의 상징과 투자의 대상뿐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체로서 인류와 함께 해 왔다. 액세서리는 관습과 사고, 정치상황, 경제수준, 기술진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장식미술 중에 액세서리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것도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얼리(jewelry)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여 복식을 고찰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아이템에도 불과하고 복식에서 주얼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로는 액세서리에 관한 이미지 지각의 차이¹⁾나 주얼리 소비형태²⁾ 등에 대해서 주로 연구되고 있다. 현대 주얼리를 이해하고, 주얼리의 디자인 및 제작을 위해서는 주얼리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본다. 특히 근대의 주얼리의 고찰은 현대의 주얼리에 대해 이해를 높이며, 현대 주얼리의 디자인 및 제작, 마케팅을 위해서 반드시 연구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액세서리는 부속품, 장신구를 총칭하는 반면, 주얼리는 보석류나 보석장식의 장신구를 뜻하므로 본 고에서는 연구내용을 주얼리로 한정시켰다. 연구범위를 근대로 설정한 것은, 근대는 현대 복식의 초석이 되고, 또한 복식의 정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패션플레이트가 성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패션플레이트를 통해 복식 외에 장신구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기의 복식은 시기적으로는 18세기 말에 속하나, 복식의 특징이 19세기 흐름의 시작이고, 근대 주얼리 생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연구범위에 포함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패션플레이트, 일러스트집 등 문헌적 고찰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은 근대의 복식 변천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여 사회·문화적 배경이 주얼리에 끼친 영향과 의복과 보석과의 관련성, 시

1) 윤영애. (2005). 액세서리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귀걸이의 재료와 형태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뷰티학회, 3(3), pp.1-10

2) 이지선. (2003). 주얼리 브랜드 사용자의 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8-52

3) 부정화. (2003). 패션주얼리 산업에 대한 마케팅 전략 연구: On-line과 Off-line 소비자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36-143

기별 주얼리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현대 주얼리의 디자인과 제작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근대 복식에 나타난 주얼리의 시기별 특성

근대 복식은 시대적 상황과 의복스타일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볼 때, 크게 5시기로 분류될 수 있다⁴⁾. 주얼리의 변천과정도 의복스타일의 변화에 관련되므로 복식의 시기별에 준해 고찰하였다.

2.1 나폴레옹 1세 시대 (1789-1815)

근대에 프랑스가 정치적인 면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자, 복식도 자연히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프랑스 복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유럽 전체복식의 흐름을 살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⁵⁾.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1815년 나폴레옹(Napoleon) 1세의 제1제정까지 30년간은 복식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귀족풍이 무너지고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혁명시기(1789-1795), 총재정부시기(1795-1799), 집정정부시기와 제1제정시대(1799-1815)로 이루어지며, 복식에서는 주로 앰파이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프랑스혁명 전의 화려함이 지나쳤던 로코코 취미에 대한 반동과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폼페이 발굴 등의 고고학적 발견, 루소의 영향으로 인해, 자연주의, 영국취미 등이 귀족들에게 유행하여 복장이 점차 간소하게 되면서 보석도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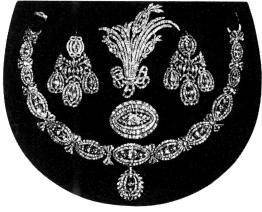
일상복으로는 화려한 주얼리 대신 목에 감은 실크리본 앞에 메달이나 십자가를 단 목걸이, 초상화가 부착된 진주팔찌, 물방울형의 진주귀걸이가 이용되었다. 그러나 호화롭고 장식이 많은 궁정복은 주얼리에도 반영되어, 머리 장식으로 진주나 금으로 된 술장식이나 날개형의 다이아몬드 장식인 에이그렛(aigrette, 깃털장식)(그림1)이 이용되었다. 목걸이도 다이아몬드나 진주로 된 호화로운 목걸이가 이용되었다. 팔찌는 리본과 4줄의 진주로 세밀화를 고정시킨 것을 양쪽에 착용하며, 귀걸이는 물방울형 진주나 보석을 박은 3개의 늘어뜨려진 장식이 달린 지란돌(girandole)⁶⁾로 장식되었다.

4) 정홍숙. (2003).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274

5) 정홍숙. (2003).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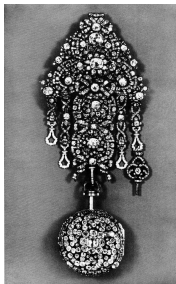
6) 가지 촛대형: 큰 보석 돌레에 작은 보석을 박은 목걸이

[그림1] 에이그렛, 18C
 Costume jewelry in vogue, p.11



이외에 중요한 액세서리인 세틀레인(chatelaine) (그림2)7)은 회중시계와 패물을 달기 위해 허리 좌우로 보통 2개가 사용되었으며, 여성의 세틀레인은 작은 봉제도구나 향수병 등 작은 물건을 달았다. 세틀레인의 보석은 2-3개를 조합하여 장식되었으나 복장에 따라 귀걸이만 보석으로 장식하거나, 의도적으로 주얼리를 장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1800년 전후로, 세틀레인은 유용적인 면에서 점차 사라지는 경향이였다.

[그림2] 세틀레인, 18C
 Five centuries of jewelry in the west, p.127



프랑스혁명 직후와 통령정부시기에 프랑스 귀족에 대한 부정은 개인 장식을 배제하는 것으로써 상징화되었다. 주얼리 착용이 귀족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가의 주얼리나 주얼리 착용이 극히 소극적이었으며, 브로치가 사용되더라도 잠그는 기능만을 가졌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스티유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기념품 정도로써, 바스티유의 돌에 조각을 한 반지나 그 쇠로 된 격자를 이용한 것, 혁명의 심볼과 모드를 새겨 넣은 것 등 애국주의적 보석이 주로 이용되었다. 혁명을 찬양하는 애국적 구절을 새기거나 영웅 초상을 스탬핑한 단순한 쇠반지가 대표적이였다(그림3)8). 보석이나 진주목걸이를 대신하여 리본이 이용되었다. 귀족의 목이 베어진 것이 공포되자, 시민은 붉은 리본을 착용한

반면에 상류층에서는 공포정치 동안 죽음을 당한 사람에 대한 애도를 상징하기위해 목에 검은 리본을 매었다9).

[그림3] 은반지, 1793
 장신구의 역사, p.123



집정정부시대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풍의 심플한 복장에 조화되게 당시의 플레이트에서는 주얼리가 거의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윗팔 부분의 암릿트나 팔꿈치 위, 손목의 브레이스릿이 장식되었다. 목걸이는 어깨띠가 새의 깃털과 같이 걸친 타원형이나 마름모형을 늘어놓은 긴 것과 2-5 줄로 된 짧은 사슬로 된 것이 있고, 그 끝에 펜던트가 달리기도 하였다. 귀걸이는 긴 펜던트형(poissarde)이나 링모양이 이용되었다. 맨발에 그리스풍 샌들을 신고 발가락에도 링을 해서 고대풍을 연출하였다. 고가의 보석은 사용되지 않고, 준보석(semi precious stones)인 카메오나 귀금속이 선호되었다.

나폴레옹 제1 제정시대에 고대 그리스풍의 복장이 엠파이어스타일로서 확립되고, 보석 산업의 경기가 되살아나, 18세기 양식과 고전취미가 혼합된 호화스런 보석이 부활되었다. 장식문양은 고대의 건축세부에서 따왔으며, 장신구는 세트로 착용하는 것이 정형화되었다. 또 나폴레옹은 대관식 왕관 장식으로 카메오를 선택하였고 보석 엔그레이빙 학교도 설립하였다. 이것은 엔그레빙한 보석이 고대 그리스 로마제국과의 연계성을 확실히 대변해 주기 때문이었다. 또한 로마는 당시 카메오 커팅의 중심지였으므로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 영향과 고전 취미에 의해, 카메오가 유행의 정점을 이루었다(그림4,5). 즉 중앙에 카메오로 장식된 다이아몬드 헤어밴드와 벨트는 그리스식 열쇠문양으로 디자인된 것을 세트로 착용하였다(그림4)10). 이 시기에는 다이아몬드나 루비로 만든 18세기풍의 주얼리나 중앙에 카메오로 만든 고대 그리스 월계관풍의 티아라가 특징적이였다(그림5). 땅아 올린 머리의 후부에는 빗만 장식되거

7) Jan Lanllier, Marie-Anne Pini. (1983). Five centuries of jewelry : 16th to 20th Century. Leon Amiel Publisher, p.127
 8) Clare Phillips. (1999). 장신구의 역사 : 고대에서 현대까지. 시공사, p.123

9) Marrybelle S. Bigelow. (1979). Fashion in history. Burgess Publishing Company, pp.225-226
 10) Clare Phillips. (1999). 장신구의 역사 : 고대에서 현대까지. 시공사, p.125

나 티아라와 함께 장식되었다. 영국에서는 1790년대와 1800년대 초기의 대표적 머리장식으로는 가운데 부분이 첨탑으로 뾰족하게 올라간 티아라인 스파르타식 다이아덤이 이용되었다. 목걸이는 주얼리를 사용한 호화로운 것부터 심플한 것까지 다양하였으나 대부분 짧았다. 당시의 주얼리패션은 작은 시계와 세트로 된 발가락 링, 귀걸이, 반지, 발목의 앵글브레이스릿, 손목의 브레이스릿, 긴 펜던트 귀걸이를 포함하여 독특하였다. 남성은 포켓의 양쪽으로 시계를 2개 착용하였다. 유럽 궁정의 여성은 다이아몬드 티아라 머리장식으로 우아하게 멋을 내었으며, 궁정 까운의 깊은 데콜레트(decolletage)를 가리기 위해 무직한 느낌의 주얼리로 된 목걸이를 이용하였다¹¹⁾.

[그림4] 헤어밴드와 벨트, 1804
장신구의 역사, p.125



[그림5] 티아라, 1810
장신구의 역사, p.124



2.2 왕정복고 시대 (1815-1850)

이 시기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실각하고 부르봉 왕조가 복고된 시기로, 루이 18세에서 샤를 10세와 루이 필립으로 이어지는 왕정으로 되돌아간 시기이다. 고고학적 발굴은 19세기 중반부터 장신구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 시대의 형태, 장식, 기법이 도입되어 신 고고학적 양식에 기여하게 되었다. 183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로맨틱시대는 옛날 좋은 시대를 회고하고, 이국으로의 동경을 포함한 감상적인 시대였다. 이 영향으로 보석에 있어서

도 새로운 양식의 것이 창조되는 것에 비해 역사적인 것과 이국적인 것으로 영감을 얻으며, 점차 감상적으로 나타나고, 이것들이 혼재하면서 19세기 후기까지 존재하였다. 또한 19세기는 산업혁명에 의해, 급부상한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보석의 대중화가 진전되었다. 영국은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후 건축미술·가구·의상에 있어서 빅토리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부르봉가에 의한 왕정이 부활하였으므로, 보석도 고대 로마풍의 것으로부터 점차 귀족적으로 호화로운 것이 다시 유행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전쟁의 영향으로서, 경제적으로 침체하고, 금도 부족 되었으므로 스탬핑 기계를 사용하여 목걸이와 브레이스릿이 대량 만들어졌다. 준보석인 자수정(amethyst), 황수정(citrine) 등이 이용되고, 3줄로 늘어뜨린 장식이 붙은 지란돌이 다시 유행되었다. 복식에도 이와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여 여자 드레스의 형태는 소매와 스커트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허리를 줄라맨 X자형 실루엣의 로맨틱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다¹²⁾. 왕정복고 직후의 복장은 가슴의 중앙 트임에는 브로치가 고정되고, 벨트에도 큰 버클이 이용되었다. 높게 올린 머리에는, 보석을 감든지, 큰 핀을 꽂았다. 귀걸이는 긴 것이 선호되고, 큰 팔찌는 양쪽의 커프스 위로 착용되었다. 그리고 무도회 때는 자수정이나 황옥(topaz) 등의 목걸이가 이용되었다. 특히 1820년대와 1830년대에는 여러 유색보석으로 대조적인 다색효과를 살린 장신구가 유럽 전역에 알려졌다.

1810년경부터 유행되어진 루비(ruby), 에메랄드(emerald), 석류석(garnet), 자수정(amethyst), 루비(ruby), 다이아몬드(diamond) 순으로 6개의 보석으로 구성된 리가드(REGARD) 보석이 유행하였다. 이것은 경애, 소중 등의 의미를 나타내었다¹³⁾. 링, 브레이스릿, 브로치 등에 보석을 나열하여 그 보석의 머리문자로서 단어를 연결해서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즉 비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보석이였다(그림 6). 보석으로 문자를 연결하여 나타내는 것 외에도 꽃단어로서 메시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십자가는 19세기 영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모티브이며, 십자가 중앙에 물방초꽃 형을 한 리가드 장식이 되어져 있다(그림 7). 다이아몬드(diamond), 에메랄드(emerald), 자수정(amethyst), 루비(ruby), 에메랄드(emerald), 사파이어(sapphire), 토파즈(topaz)의 보석 첫 글자를 조합한 DEAREST의 의미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의미를 내포하였다¹⁴⁾. 이것은 로맨틱한 감상이나 애

11) Marrybelle S. Bigelow. (1979). Fashion in history. Burgess Publishing Company, p.226

12) 신상우. (2006). 서양복식사. 수학사, p.243

13) 齋藤貴子. (2005). 寶石とジュエリ-事典. 成美堂出版., p.32

정, 우정 등을 나타내었다. 모티브는 성실, 희망, 자애를 표시하는 하트나, 십자가, 지성이나 영원성을 상징하는 뱀, 그리고 여러 가지인 꽃이, 그 꽃 단어의 의미를 포함해서 많이 이용되었다. 또 연인의 세밀화를 넣은 로켓(rocket)¹⁵⁾도 선호되었다. 이 감상주의 시대에, 사랑의 구절로 된 시계 편지는 얇은 유리 알 뚜껑 아래에 넣어졌고, 시계제조업은 훌륭한 예술이었으며, 만드는 사람은 시계 편지에다 그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그림6] 펜던트, 1820-1830
寶石とジュエリ-事典, p.32



[그림7] 십자가형 리가드, 1820-1830
寶石とジュエリ-事典, p.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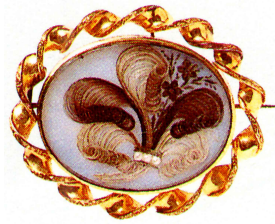


30년대에는 중세나 고딕풍의 우화나 종교를 소재로 한 것이 많이 보여졌다. 이마를 가르는 밴드로서 착용된 섬세한 체인장식의 중앙에 한 개의 보석으로 펜던트를 단 페로니에르(ferronniere)¹⁶⁾도 부활하였다.

헤어주얼리는 머리카락을 이용한 보석으로서, 중세부터 있었으나 1838년경부터 다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추억이나 추도를 위해, 죽은 자의 유발을 날개와 같은 형으로 배열하여 엮은 다음, 그 위를 유리 등으로 덮어, 브로치나 팔찌의 잠금새에 사용되었다(그림8). 당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신체 주변에서 느끼고 싶다는 생각에서¹⁷⁾, 주로 브로치나 반지 등

에 헤어주얼리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세기 중반에는 짜여진 모발 자체를 사슬로 한 헤어 위크가 유행되었다. 머리카락에 강도를 주기위해 말털을 혼합하거나 꼬았다. 전문 직인이 다양한 기술로 사슬이나 하트, 리본, 뱀 등의 형태를 정돈하였다. 이후에는 유발 외에 연인과 가족의 모발에 애정을 표현하는주얼리로 장식하였다.

[그림8] 헤어주얼리, 1838
寶石とジュエリ-事典, p. 57



그러나 1840년 전후로 되면 머리형이 귀를 덮게 되면서, 무도회 때도 목걸이 없이, 팔찌나 가슴 브로치만 이용되는 등 보석사용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그림9). 1840년대는 르네상스 부흥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역사적인 정확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1840년대에 여성복은주얼리 장식이 적었으며, 남성복도주얼리 장식 없이 착용되었다. 그러나 왕족의 경우에는 파라솔 손잡이에까지주얼리로 장식하기도 하였다¹⁸⁾.

[그림9] 가슴장식, 1846
20000years of fashion, p.361



2.3. 나폴레옹 3세 시대 (1848-1870)

이 시기는 프랑스의 루이 나폴레옹 3세가 황제로 즉위한 1850년부터 1870년까지로 크리놀린 스타일 시대이다. 나폴레옹 3세에 의한 제2 재정이 시작되면서, 경제력이 부활하여, 18세기의 자연주의의 꽃이나 잠자리, 작은 새 등의 모티브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비잔틴풍, 이집트풍, 일본풍과 여러 가지 양식이 출현하였다. 이것들은 유럽 속에 퍼졌

18) Phyllis Tortora, Keith Eubank. (2005).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p.314

14) 齊藤貴子. (2005). 寶石とジュエリ-事典. 成美堂出版., p.33
15) locket:사진 등을 넣어 쇠줄에 달아 목에 거는 장신구
16) Phyllis Tortora. (1997). Encyclopedia of fashion accessories. Fairchild, p.140
17) 齊藤貴子. (2005). 寶石とジュエリ-事典. 成美堂出版., p.57

던 여행열기, 수에즈 운하의 개통, 일본의 개항, 유적 발굴, 문학의 영향 등 당시의 사회적인 사건이나 관심사가 근원으로 되고 있었다. 1850년대에는 다이아몬드를 소재로 한 커다란 꽃모양 코르사주(corsage)가 생겨났다. 영국의 빅토리아시에는 역사적 모티브의 보석이 유행하고, 여왕의 영향으로 감상적 보석(sentimental jewelry)이 발전하였다.

최대로 데콜레트 된 이 시기에는 루비, 다이아몬드, 진주로 만들어진 주얼리가 다량으로 사용되었다. 목걸이는 크고 화려하며, 목둘레를 에워싸는 보석 칼라로 나타났으며, 조화되는 줄보석으로 부터 배모양의 보석펜던트가 달렸다. 유제니 왕비시에는 드러낸 데콜레트가 유행하였으며, 목이나 노출시킨 어깨와 윗가슴에 목걸이가 복잡하게 착용되는 일은 없었다. 브로치는 한 개의 큰 보석에 작은 다이아몬드로 에워싼 형태로 목선의 가장 아래쪽에 착용되었다. 코이프가 귀를 덮게 되자, 귀걸이에 대한 욕구는 최소로 되었다. 귀걸이는 금과 늘어뜨려지는 펜던트 형으로 디자인되고, 구멍을 뚫은 컷볼을 통해 작은 금 철사가 부착되었으며, 주로 작은 링 형태만 착용되었다. 넓은 금 브레이스릿은 보통 겹쳐서 착용하였다. 남성은 넓은 리본과 함께 시계를 매달 수 있는 금 시계줄로 된 포켓시계를 착용하였다 19).

50년대의 크리놀린시대에 목걸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팔찌만 착용되었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 귀가 노출되면서, 평상시에도 큰 귀걸이가 착용되었으며, 무도회용으로 호화로운 목걸이도 부활되었고, 팔찌도 양쪽에 겹쳐서 이용되었다(그림10).²⁰⁾ 1850년대 남성복에 이용된 주얼리는 주로 시계, 시계줄, 타이핀, 링, 단추장식 등에 주로 한정되었다²¹⁾.

1861년에 남편인 아루바드공이 서거하고, 여왕은 긴 세월, 상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궁전에서는 애도보석만 착용되었다. 이로 인해 흑옥이나 헤어보석, 대모갑(玳瑁甲)을 시작으로 한 애도보석(mourning)이 유행하게 되었다. 애도보석은 상복을 입는 기간에 몸에 단 장신구로, 흑옥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 흑옥은 나무가 화석화된 것으로서, 부드럽게 가공하기 쉬웠으므로, 그 가벼움을 살려서, 크게 흔들리는 팔찌와 브로치 등으로 만들어졌다(그림11). 흑옥은 적당한 거친 가공의 느낌을 위해 광을 내지 않은 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주 섬세한 보석에

견주어 질 정도로 고도로 광을 내거나 깎아서 작은 면으로 나타내었다²²⁾.

[그림10] 귀걸이, 1864
Costume & fashion, p.187



[그림11] 흑옥의 애도보석, 1870-1885
장신구의 역사, p.151



2.4. 세기말시대 I (1870-1890)

이 시기는 버슬 스타일시대로서, 이 시기 초기에 가장 인기 있는 주얼리는 금에 장식된 디자인으로 된 진주목걸이, 드롭이어링, 바 핀(bar pins)이었다. 다이아몬드, 흑옥, 진주, 준보석 등은 크기가 작으면서 복잡하게 얽혀진 형태로 금세팅에 장식되었다²³⁾.

70년대의 버슬 스타일(70-90)시기에 중요한 보석인 귀걸이와 팔찌는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었으며, 평상시 뿐만 아니라 무도회 때도 목을 감은 검은 리본에 펜던트를 단 것이 유행하였다(그림12). 80년대에도 펜던트를 단 검은 리본 목걸이는 계속 이용되었으나, 대체로 보석을 착용하지 않게 되어, 팔찌만 착용하는 정도였다. 1887년 여왕의 재위 50년을 계기로, 궁전에서 은으로 된 보석 착용이 허락되어, 은 소재의 감상적인 보석이 유행하였다. 이것은 사랑이야기나 물망초, 가족과 연인의 이름을 새겨 넣어 상호 교환하였다. 특히, 여성도 크리켓, 수렵,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게 되면서, 스포츠로부터 모티브를 얻은 은 소재의 보석이 생겨났다. 주간의 여성복에 브로치 사용하는 것과 함께, 보석으로 된 헤어장식, 목

19) Marrybelle S. Bigelow. (1979). Fashion in history. Burgess Publishing Company, p.254

20) James Laver. (1986). Costume & fashion. Thames and Hudson, p.197

21) Phyllis Tortora, Keith Eubank. (2005).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p.314

22) Caroline Goldthorpe. (1988). From queen to empres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73.

23) Marrybelle S. Bigelow. (1979). Fashion in history. Burgess Publishing Company, p.277

결이, 조그만 후프나 불형의 귀걸이, 브레이스릿이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착용되었다²⁴⁾.

[그림12] 검은 리본 목걸이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p.183



2.5. 세기말시대 II (1890-1910)

이 시기는 아르 누보(Arts Nouveau) 스타일 시대로서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말기와 에드워드 왕조기(1901~1910)에 해당된다²⁵⁾. 여성복은 1880년대 말기에, 이전의 버슬 스타일로부터 가슴과 엉덩이를 돌출한 S자형으로 변화되었다. 이 드레스의 강조된 바스트 앞부분에 보석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꽃이나 리본으로 된 대형의 브로치가 고정되고, 그 위에 무늬 안경 등의 긴 사슬을 늘어뜨리지게 겹치거나 진주로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였다(그림13).

[그림13] 진주 장식, 1900

Understanding jewellery, p.276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실용화된 프래티나(platinum:백금)의 강도에 의해 소량으로도 보석을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섬세하고 우아한 화환형(garland style)의 보석이 이용되었다(그림15). 화환형은 진주나 19세기 후기에 발견된 남아프리카 광산의 다이아몬드를 소재로 한 흰 것이 대부분이며, 다른 색이 단색이나 악센트로서 곁들여졌다.

1890년부터 1910년경에 걸쳐서 일어난 아르 누보 운동은 특히 장신구 디자인 분야에서 성공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전까지는 장신구에서 다이아몬드가 주재료로 사용되었으나, 이제는 다양하고 저렴한

준보석을 많이 이용하였다. 보석 자체의 가치보다도 그 색채에 중요성을 두어 준보석인 오팔, 비취, 마노, 상아 등이 많이 활용되었다. 다이아몬드는 가장 자리 장식용으로 작은 것이 사용되는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열고 차분한 색조였다. 아르 누보 주얼리의 모티브는 식물과 동물 등 자연을 소재로 한 것과 젊은 여인이 드레이프진 우아한 의상을 입은 관능적인 모습 등이 모티브로 사용되었고, 또한 이를 결합한 여인과 꽃, 여인과 잠자리 등도 이용되었다. 아르 누보 주얼리 디자이너들은 부드럽고 자연주의적 색상을 갖는 에나멜 예술을 완성시켰다. 에나멜 소재로 한 섬세한 주얼리 디자인이 유행하여, 주얼리의 색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에나멜이 주는 음영 효과는 주얼리가 갖는 빛의 발산 투명함, 깊이감 까지도 그대로 나타내었다. 특히 스탠드글라스 모양의 프리카주르(plique-a-jour) 에나멜(그림14)이 선호되었다.

이브닝드레스의 목선을 깊고 넓게 파서 어깨와 목이 많이 드러났을 때, 목걸이와 펜던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어 새로운 디자인이 나타났다. 또 소매 없는 드레스가 유행할 때는 팔찌 등 팔을 장식하는 장신구 디자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폴 푸아레가 코르셋을 패션에서 제거해 버리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드레스를 선보이게 되자, 크고 무거운 장신구는 차차 사라지게 되어, 절제되고 섬세한 형태의 장신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00년대에 긴 진주목걸이, 다이아몬드, 에머랄드, 금이나 백금에 돌을 새긴 루비세트로 목을 감싸는 도그 칼라(dog collar)로 만들어졌다. 가장 특징적인 목걸이는 진주로 만든 도그 칼라 형태로 목에 딱 맞게 착용한 폭 넓은 초커(choker)였다(그림15).

[그림14] 프리카주르, 1900

Understanding jewellery, p.222



[그림15] 초커, 1910

Understanding jewellery, p.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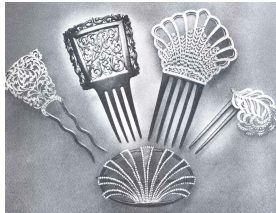
24) Phyllis Tortora, Keith Eubank. (2005).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p.331

25) 정홍숙. (2003).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340

브레스릿은 이전과 같이 많이 겹치는 것은 감소되고, 섬세한 형이 선호되었다. 1900년대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크고 과도한 머리장식은 주얼리 디자인의 형태와 기능에도 영향을 미쳤다. 부풀린 머리를 풍성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머리핀과 정교한 머리빗, 모자를 고정시킬 수 있는 머리핀 등이 디자인되었다(그림16). 평상시에도 큰 모자를 이용하였으므로, 모자를 고정하는 하트 핀도 중요한 보석이었다.

1910년경 S자 실루엣이 사라지면서 더욱 길어진 목걸이가 선호되었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체인 2개를 중첩시키고 각 체인에 가늘고 긴 보석장식 펜던트를 단 라발리에르(lavalliere) 목걸이와 진주나 호박소재의 긴 비드목걸이가 유행하였다. 1910년대부터 유행한 커튼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은 장식된 밴드로 머리의 중심부를 묶는 형태로 저녁에는 깃털이나 보석으로 장식하였다(그림17)26). 진주, 리본 깃털, 꽃으로 장식한 니니슈라는 머리 장식용의 정교한 헤어밴드가 있었다.

[그림16] 주얼리 빗, 1914
Costume Jewelry in Vogue, p.34



[그림17] 헤드드레스, 1917
Costume jewelry in vogue, p.39



3. 결론

근대 복식의 변천과정을 통해 본 주얼리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혁명 직후는 정치적 영향으로 애국주의적 주얼리만 허용되었고, 19세기 초기까지는 단순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주얼리 사용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엠파이어스타일 시대에는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과 고전 취미로 인해, 다이아몬드나 루비로 만든 18세기풍이나 카메오로 장식한 고대 그리스 월계관풍인 티아라와 세트로 만든 주얼리가 많이 애용되었다.

왕정복고시대에는 부르봉가의 왕정이 부활됨으로서 주얼리도 귀족적인 취향에 맞게 호화로운 것이 유행되어 지란돌도 다시 유행되었다. 30년대에는 중세나 고딕풍의, 우화나 종교를 소재로 한 것이 많았다. 로맨틱한 정서에 의해 감상적 보석도 이용되었다.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애정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지만 왕정복고시대의 로맨틱시기에 주얼리로 사랑을 전한 것은 그 시대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매우 로맨틱한 감정에 의한 것으로, 주얼리가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왕정복고 직후, 가슴의 중앙 트임에 브로치와 큰 버클로 된 벨트, 긴 귀걸이와 커프스 위에 착용한 큰 팔찌 등 주얼리가 선호되었으나, 그러나 이후에 귀를 가린 머리스타일이 유행하자, 팔찌나 브로치만 하게 되면서 점차 보석사용이 줄었다.

1850년대의 크리놀린스타일시대에는 경제력이 부활되고, 18세기 자연주의의 꽃이나 잠자리, 작은 새 등을 모티브한 다이아몬드 소재의 것이 많이 만들어졌다. 여행열기, 수에즈운하 개통, 일본 개항, 유적발굴, 문학 영향 등 당시의 사회적인 사건이나 관심사가 근원이 되어 비잔틴풍, 이집트풍, 일본풍과 여러 가지 양식이 출현하게 되어, 이것이 주얼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860년대 이후 빅토리아 여왕의 영향으로 흑옥의 애도보석과 헤어주얼리가 유행하였다. 60년대에 귀의 노출과 함께 일상시에도 큰 귀걸이가 착용되었다. 버슬스타일 시기에 펜던트가 달린 검은 리본 목걸이가 유행하였으나 보석은 그다지 많이 착용되지 않았다. 1880년대 말에는 은 소재의 센티멘탈 보석이 유행되었고, 여성이 스포츠를 즐기면서, 스포츠를 모티브로 한 은 소재의 보석이 이용된 점 또한 의상 못지않게 주얼리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19세기 말엽에, S자형 의복 앞의 강조된 가슴에 꽃, 리본으로 된 대형 브로치가 이용되고, 진주로 된 도그 칼라와 실용화된 백금으로 가란드스타일의 보석이 유행되었다. 진주, 다이아몬드를 많이 사용한 것이 기본이었다.

아르누보시대에는 보석 자체의 가치보다도 색채에 중요성을 두어, 작은 다이아몬드가 가장자리 장식으로만 이용되고, 백금, 준보석, 특히 프리카주

26) 김영인 외 7. (2001). 현대패션과 액세서리 디자인. 교문사, p.49

르 에나멜이 선호되었다. 1900년대의 부풀린 머리를 고정하기 위한 머리핀과 머리빗 외에 큰 모자를 고정하는데 필요한 머리핀 등이 디자인된 점은 주얼리가 의복 못지않게 직접적으로 헤어스타일과 네크라인에도 많은 영향을 받음을 나타내고 있다. 1900년대의 과도한 머리장식은 주얼리 디자인의 형태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주얼리는 복식 변천과 같이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근대의 주얼리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의상 못지않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오히려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의복 보다 더 민감하게 변화되어 왔음을 인식 할 수 있었다. 주얼리 마케팅에서, 고가, 중저가, 저가 소재 중에서 그 시기의 경제적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할 후, 그 시기의 트렌드를 반영한 칼라와 디자인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의상의 기본 실루엣과 의복에 사용된 디테일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점도 주얼리 마케팅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다. 또한 주얼리는 의복의 스타일에도 영향을 받지만, 특히 상부에 착용되는 주얼리는 헤어스타일과 네크라인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고찰되었으므로, 이 점 또한 염두에 두고 주얼리 디자인과 아이템 선정에 주력해야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얼리, 의상, 헤어스타일이 토털 패션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재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근대의 복식변천에 따른 주얼리의 특성 고찰은 현대 주얼리의 디자인과 소재 개발, 주얼리 마케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보아진다.

참고문헌

- 1) 김영인 외 7, (2001). 현대패션과 액세서리 디자인. 교문사.
- 3) 신상옥, (2006). 서양복식사. 수학사.
- 4) 정홍숙, (2003).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 5) Aileen Ribeiro, (1995). The art of dress. Yale Univesity.
- 6) Blanche Payne, (1965). History of costume. Happer & Row.
- 7) Caroline Goldthorpe, (1988). From queen to empres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8) Catherine Grant, (2005). New directions in jewellery. Black dog.
- 9) Clare Phillips. 김숙 역, (1999). 장신구의 역사 : 고대에서 현대까지. 시공사.

- 10) David Bennett & Daniela Mascetti, (1989). Understand Jewellery. Antuqye Collector's Club.
- 10) Doreen Yarwood, (1986).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Bonanza.
- 11) Douglas Gorshline, (1994). What people wore. Bonanza.
- 12) Francois Boucher, 座右寶刊行會 역,(1965). Historie du costume. 文化出版局.
- 13) Francois Boucher, (1987). 20000 years of fashion. Harry N. Abrams.
- 14) James Laver, (1986). Costume & fashion. Thames and Hudson.
- 15) Jan Lanllier, Marie-Anne Pini, (1983). Five centuries of jewelry : 16th to 20th Century. Leon Amiel.
- 16) Jane Mulavagh, (1988). Costume jewelry in vogue. Thames and Hudson.
- 17) John Peacock, (1997). The chronicle of western costume. Thames and Hudson.
- 18) Kay Staniland, (1997). In royal fashion. Museum of London.
- 19) Marrybelle S. Bigelow, (1979). Fashion in history. Burgess.
- 20) Phyllis Tortora, (1997). Encyclopedia of fashion accessories. Fairchild.
- 21) Phyllis Tortora, Keith Eubank, (2005).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 22) Ribeiro & Cumming, (1997).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Batsford.
- 23) 薺籐貴子, (2005). 寶石とジュエリ- 事典. 成美堂出版.